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59)

爲子孫奴耶

위 자 손 노 야

자손의 노예가 될 것인가?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그 앞날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려는 것은 예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다.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인물인 맹자(孟子)를 말할 때면 떠오르는 말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이다. 맹자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하여 계속해서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전한(前漢)시대 경학(經學)의 대가라 할 유향(劉向)이 편찬한 열녀전(列女傳)에 실려 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맹자를 데리고 처음에 묘지(墓地) 근처에 살았는데, 어린 맹자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장사지내는 것이어서 시전(市廛)이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상인이 물건을 팔고 있는 모습만 배우자 다시 서당(書堂) 주변으로 이사했다. 그제야 맹자가 글 읽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맹자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말이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제대로 교육 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성공한 경우의 대표적 예로 회자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부모가 자식 교육을 위하여 맹모(孟母) 이상으로 이사 다닌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교육의 전당인 학교 근처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학원이 있는 곳으로 간다. 그래서 개학이 가까워지면 좋은 학원이 있다는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그래서 집값 또한 덩달아 올라간다.

이것도 맹모에 비교할 수 있을까? 요즘 많은 부모들은 학원 근처로 이사 간 다음에 자식에게 실 틈을 주지 않고 하루에 몇 군데의 학원을 거처서 한방중여야 집에 오도록 한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아이들이 이른바 '창의력'이 없는 '암기'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것이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

역사 기록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할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속자치통감에는 금(金)의 태보(太保)이고 도원수(都元帥)인 완안양(完顏昂)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시에 금나라는 남송을 압박하여 해마다 세폐(歲幣)를 받고 있었고, 완안양은 그렇게 강한 나라의 황족이고 높은 관

직까지 가졌으니 돈이건 권력이건 자식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을까?

사실 완안양의 삶도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원래 금왕조를 개국한 금 태조(太祖) 완안아골타(完顏阿骨打)를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여러 차례 큰 공적(功績)을 이룬 사람이다. 그런데 도중에 같은 황족인 완안량(完顏亮)이 황제인 희종(熙宗)을 죽이고 스스로 황제가 된 사건이 벌어진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 완안양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는지라 자리가 불안했던지 특하면 사람을 죽이는 폭군이 되어 갔다. 이런 정치적 변동기에는 어떻게 사나이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암기(暗記)한 지식 속에는 없다. 사태를 잘 못 파악하면 황족이기 때문에 새 황제가 자기의 경쟁자로 알고 죽일 수도 있다. 반대로 새 황제에게 아첨하면 출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완안양의 부인은 쿠데타를 일으킨 완안량의 이종사촌 누이인 대씨(大氏)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안양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집안 동생인 완안량이 황제로 있던 10여 년 동안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었다. 술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같이 취하여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렇게 폭주(暴酒)한다는 소식이 새 황제인 완안량에게 전해지자 그를 불러서 단단히 주의하였다. 그러나 완안양은 틈만 있으면 예전처럼 술을 마시면서 조금도 고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황제 완안량은 남송을 다시 공격하려고 군사를 일으키고 직접 전방에 나아갔다. 이때 완안양의 독재와 만행에 진저리를 내던 사람들이 경사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태조 완안아골타의 손자인 세종(世宗) 완안옹(完顏雍)을 옹립하여 황제로 추대한 것이다. 한편 전선에 나가 있던 황제 완안량은 부하들의 손에 목이 베였다.

세상이 바뀌자 완안양은 양주(揚州)에서 경사로 돌아왔다. 모처럼 집에 온 완안양을 보자 부인 대씨는 그가 술을 좋아하는 것을 아는지라 술을 준비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완안양은 술 몇 순배를 돌리고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누어버렸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고 대씨가 그 이유를 물었다.

완안양은 말하였다. “나는 본래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지만, 지난번에 술로 스스로 아둔한 척하지 않았다면 나는 오래 전에 그대의 동생인 황제 완안량에게 죽었을 것이요, 지금 밝은 시절을 만났으니 마땅히 스스로 아껴야 하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요.” 그에게는 술을 먹으며 자신을 감추었던 것이 완안량 시절에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불가근불가원의 폭군인 완안량 시절에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차린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자식을 위하여 최고의 선택을 했을 것인데,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자신의 재력과 지위를 자식에게 남기려 하지 않았다. 자식보다는 그보다 못한 형제를 도와주어 화목하게 지내며 특히 친족(親族) 중에 빈곤(貧困)한 사람이 있으면 넉넉하게 주었다.

이러한 행동을 본 어떤 사람이 완안양에게 그 자손의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하였더니, 그의 대답은 의외였다. “사람은 각기 운명이 있는 것이며, 다만 그가 자립(自立)할 수 있게 할 뿐이지 어찌하여 자손의 노복(奴僕)이 되기에 이를 것인가!”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 온 완안양은 자기가 모든 재산을 남겨 주기보다는 재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지 가르쳐 주었고, 보이지 않게 이웃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것이 자식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자기도 자식의 노복이 되지 않고 자식도 제힘으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지금 맹모(孟母)처럼 야단법석인 사람들의 행동은 정말 자식을 위한 것일까? 그렇게 극성스럽게 했지만, 후창의력 없는 자식을 길러내어 물고기를 잡아 주어야 겨우 살 수 있는 무능력한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부모라면 자식을 위하여 자신이 죽을 때까지 봉양해야 하는 노복으로 전락하겠지만, 그것을 감수한다고 하여도 자기가 죽고 나서 남겨진 자식은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부터 1천 년 전에 살았던 완안양도 이미 자식을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물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스스로 학벌을 자랑하는 오늘날 우리의 많은 맹모들은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노복이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원주종친회 제39차 정기총회 및 제14대, 15대 회장 이취임식 거행



정기총회



권순구 회장



권영창 회장

원주종친회 제39차 정기총회 및 제14대, 15대 회장 이취임식이 6월 3일 11시 원주웨딩타운에서 권순구 신임 회장과 권창구 전임 회장, 권오열 평후공종회 회장, 권혁윤 전 강릉종친회장, 권병규 횡성종친회장, 권순철 강릉종친회장, 권옥형, 권오광 강원경제진흥원 원장,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 권이중 변호사 등 10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덕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특히 5월 24일 안동권씨 대종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권영창 회장은 취임 10여 일 만에 원주종친회 정기총회에 권오상 사무총장,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환원 편집국장장과 함께 방문하여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날 행사는 제1부 정기총회와 제2부 회장 이취임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제2부 회장 이취임식은 개회선언, 국민 의례, 전임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기념품 증정, 장학금 수여, 내빈 소개, 이임회장 인사, 신임회장 인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창구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권순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안동권씨는 1000여 년의 역사가 깊은 성씨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을 기억한다. 이 시대에 우리는 각자 직능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자. 종친회는 다른 친목회와 달리 일가끼리 모임이다. 그래서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서로의 마음을 합치고 뜻을 모으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선조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후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5대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생동감 있는 종회, 참여하는 종회, 협력하는 종회, 역동적인 종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호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은 축전을 통해 제14대, 15대 회장 이취임을 축하하고 원주종친회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축사에서 “취임한 지 10일 되었다.

여러 가지 행기고 있다. 달라지는 대종회를 통해 그 파급효과가 각 지역종친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우리가 안동권문이 100만 족친이라고 하지만 과연 100만 족친의 대종회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시조 묘소에 가족들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종회의 할 일이다. 진입로에서부터 능동재사까지 꽃길을 만들어 볼품있게 만들도록 하겠다. 100만 족친이라고 하면서 시조 동상 하나 세우지 못했다. 성금 내주시는 분은 돌에 이름을 새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심기 헌수운동을 할 계획입니다. 능동재사 앞에 멋지게 심어 명패를 보기 좋게 달아 놓겠습니다. 각 집에 있는 유물들을 유물기록관에 수집하여 능동이 관공지와 성지가 될 수 있게 탈바꿈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100만 족친 하면서 임원만 있고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이 없는 대종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종회가 되어야 하고, 특히 종보를 구독하는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1년에 종보 3만 원입니다. 만 명이면 3억입니다. 이런 안동권씨 11000년 사업을 어떻게 할까 호소드리러 왔습니다. 종보 1부 봐주시고, 집에 아끼는 나무 있으면 헌수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원 되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찬성하십니까? (참석자 전원 예) 저는 바르게 살기 운동을 45년 했습니다. 모두 투명하게 돈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권창구 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권순구 회장님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제 원주종친회 회원들은 모두 우렁찬 박수로 화답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기념촬영을 하고 준비된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권영원 편집국장

부산 부녀회 6월 월례회 개최

부산 부녀회(회장 권상희)는 지난 8일(목) 12시에 부산 서면 통영아귀찜 음식점에서 권상희 부녀회장, 권영래, 권춘자, 권옥태, 권정순 고문, 권영희 전 부산 아미초등학교 교장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부녀회에서는 권영현 신임 부산종친회 회장과 권채영 종친회 사무국장을 특별히 초청하였다.

권영현 종친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부녀회 월례회가 제가 종친회장이 되고 처음 거행되는 행사이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다. 앞으로 종친회 발전에 부녀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상희 회장은 부산 부녀회는 전국 안동권씨 종친회 중에서 유일하게 있는 부녀회라고 알고 있다. 그런 만큼 더 화합하고 단합하여 모범이 되는 부녀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잘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식대비 40여만 원은 권영현 종친회장이 전조했다. 부산부녀회는 월례회를 매달 8일에 개최하고 있다.

권채영 사무국장

<2023년 6월 증보대금 납부자 명단>

납부기간: 5.31. ~ 6.28.

총 납부자 21

지사·지국 2곳

(이름순)				단위:원	
** 권인택	권성회(경기용인)	권영진(경기성남)	권윤기(성주)	권혁주(칠곡)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권기백(경주)	권순갑(경기용인)	권오현(서울구로)	권윤희(경기수원)		지사지국 납부지역
30,000	30,000	30,000	30,000		
권남철(인천)	권영달(산청)	권용규(의성)	권재동(합천)		부산종친회
30,000	30,000	30,000	30,000		1,000,000
권덕규(안동)	권영복(체천 오티로)	권용일(서울구로)	권중봉(거제)		원주 거처사공종중
30,000	30,000	30,000	30,000		660,000
권서은(경기양평)	권영석(서울은평)	권우달(양산)	권진현(함양)		
30,000	30,000	30,000	30,000		

* 연간 증보 구독대금은 3만원입니다.

** 납부자 본인 확인이 필요하시니 대종회로 꼭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290,000원

안동권씨 증보 광고비 조정 안내

안동권씨 증보 광고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조정된 금액은 7월 1일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광고비 조정 내역

기준	크기	금액(원)		비고
		기존	조정	
5단 (370 × 170)	5단	1,000,000	500,000	조정된 금액은 7월부터 시행
	5단 1/2	500,000	300,000	
	5단 1/4	300,000	100,000	

2023.7.1.

안동권씨 대종회